

 국토교통부		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		
		배포일시	2021. 11. 9.(화) / 총 6매(본문3, 참고3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	담당자	· 과장 나웅진, 사무관 김대곤, 주무관 김선호 · ☎ (044) 201-3911, 3918	
	한국도로공사 재난안전처	담당자	· 처장 장석명, 팀장 배병훈, 차장 황우주 · ☎ (054) 811-2701, 3735	
	한국건설기술 연구원	담당자	· 제설시스템 팀장 장진환, 연구원 박상규, 연구원 박근형 · ☎ (031) 910-0684, 0189, 0439	
보도일시		2021년 11월 10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9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폭설·결빙 대비 겨울철 도로안전 관리체계 본격 가동

- 10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... 15일부터 제설 대책기간 시작 -

-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의 각 도로관리청들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간 ‘제설 대책기간’에 돌입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제설 대책기간 시작을 앞두고 도로관리 관계기관의 준비현황을 최종 점검하는 한편,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.
 -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, 한국도로공사,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 도로관리청뿐만 아니라 도로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,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총 20여개 기관이 참석하여,
 - 겨울철 대형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과 폭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제설작업과 안전운전 캠페인 등 겨울철 도로 안전 대책에 대해 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.

□ 이번 제설 대책기간 동안 각 도로관리청들은 겨울철 대형 교통 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 및 폭설 등에 대비해 선제적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한다.

○ 특히, 지난겨울에 발생한 지역의 국지성 폭설로 인한 차량고립으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음에 따라 철저한 제설 준비와 함께 도로의 상황을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유관기관 간 협의체 운영 강화에 집중할 예정으로 중점추진사항은 아래와 같다.

① 도로 상태에 대한 운전자 안내 강화

- 올해 대폭 확대한 결빙취약구간* (410개소(840km)→464개소(1,408km))에 대해서는 SK텔레콤(주), (주)카카오모빌리티 등 내비게이션 회사에 협조를 받아 운전자가 사전에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.

* 고속·일반국도 쏘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로 주요 고갯길, 상시 응달구간 등을 지정

- 아울러, 작년 말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2,194개소의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를 적극 활용하여 운전자가 눈이 오거나 살얼음 발생 위험이 큰 경우 운행 제한속도를 감소* 시키고 그 내용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.

* 노면이 젖거나 쌓인 눈 2cm 미만인 경우 20% 감소 / 노면이 얼거나 쌓인 눈 2cm 이상 또는 폭설로 가시거리 100m 이내인 경우 50% 감소

② 결빙취약구간 중점 관리

- 지정된 결빙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자동염수분사시설,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확충*하는 한편, 전담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CCTV로 현장을 상시 확인하는 등 적극 관리한다.

* 올해 확충: 자동염수분사 59개소,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 93개, 노면 흠파기 6km

- 어는 비나 안개·서리 등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는 기상 여건이 될 경우 염수를 사전에 살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여 시행한다.

③ 충분한 제설자원 확보

- 최근 5년간 평균사용량의 130% 수준인 40만 톤의 염화칼슘·소금 등의 제설제를 확보하고, 인원 약 4천 6백 명, 제설장비도 약 6천 5백 대를 투입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.

④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도로관리청 간 협력 강화

- 제설 대책기간 동안 각 도로관리청은 24시간 근무 및 상황보고 체계를 운영하고, 권역별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관리청 간 인력·장비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결빙·폭설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.
- 이를 관련하여 오는 11월 11일에는 강릉 대관령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, 강원도, 한국도로공사 등 8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재난 대비 폭설 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이윤상 도로국장은 “정부는 겨울철 도로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, 폭설이나 살얼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민께 상황을 알리고 신속히 위험요소를 제거 하는데 노력을 집중할 것”이라며,

- 가장 효과적인 안전대책은 안전운전이므로 도로 이용자 분들에게는 「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수칙」과 「눈길 안전운전 요령」을 숙지·준수하여 주시고, 눈길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”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김대곤 사무관(☎ 044-201-391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① 도로살얼음(일명 '블랙아이스')이란?



블랙아이스
(Black Ice, Clear Ice)

- 빙판 또는 살얼음판
- 도로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**얇은 얼음막**이 생기는 현상

상주 ~ 영천 고속도로사고



47대 추돌 - 사상자 49명
(사망 7명, 중경상 42명/2019. 12. 14)

경남 함천 33번 국도사고



41대 추돌 - 부상자 10명
(2020. 1. 6)

② 도로살얼음 상습 발생지점

- 교량 위, 터널 입·출구, 산모퉁이 음지, 비탈면 구간 등 **그늘지고 온도가 낮은 곳**



교량 위



터널 입·출구



산모퉁이 음지



비탈면 구간

도로살얼음 위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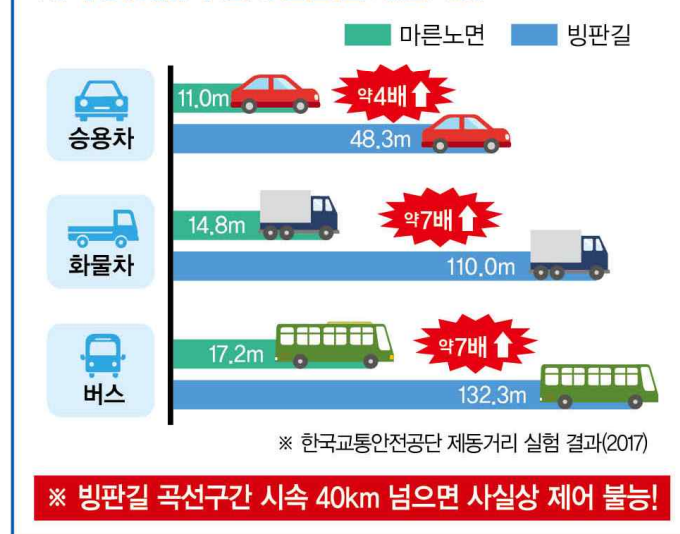
겨울철 도로 위의 "암살자"



③ 도로살얼음 위험성

- 맨눈에는 젖은 도로처럼 보이거나 도로색으로 보여 **식별 곤란!**
- 갑작스럽게 차가 미끄러져 **차량 제동 곤란, 제동거리 증가**로 연쇄 추돌 등 **대형교통사고 발생** 위험 매우 높음

시속 50km 주행시 빙판길 제동거리



④ 도로살얼음 등 동절기 교통사고 예방 수칙

- ① 운행 전 기상정보와 도로정보를 꼼꼼히 파악!
- ② 노면 습기가 있거나 결빙 예상 구간에서는 절대감속!
※ 빙판길에서 시속 40km를 초과 시 제어 불능상태
- ③ 급제동, 급핸들조작, 급가속은 절대 금물!
※ 급격한 차량 조작은 차량회전(스핀현상)으로 직결
- ④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행하는 방어운전 필요!
- ⑤ 눈길 진입 시 앞차의 타이어 자국을 따라가기!
- ⑥ 차량이 미끄러질 때 핸들 조작은 미끄러지는 쪽 방향으로!
※ 미끄러지는 쪽과 반대로 핸들 조작 시 차량회전(스핀현상) 심화

눈길 안전운전 요령



가급적 대중교통 이용, 저속운행
교량, 터널, 커브길 등 감속운행

터널 등 감속운전

대설특보... 대중교통 이용당부

평소보다 안전거리
2배 이상 유지

스노우체인 등
월동장구를 차량에 비치

후륜차는 뒷바퀴, 전륜차는 앞바퀴

폭설에 고립된 경우라도
차를 갓길이나 본선에 방치 금지
(부득이 차량에서 이탈시 연락처와 열쇠를 꽂아두고 대피)

대형화물차량 등은 고속도로 주행 자제
휴게소 등 대기 후 운행

휴게소

타이어는 사전에 스노우타이어로 교체,
부동액, 배터리 등 이상유무 점검

연진오일, 부동액
배터리 점검

- 교통정보(일반국도 ☎1333, 고속도로 1588-2504 등)를 사전에 확인.
- 교통통제시 경찰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직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.

일반국도 ☎1333
고속도로 ☎1588-2504